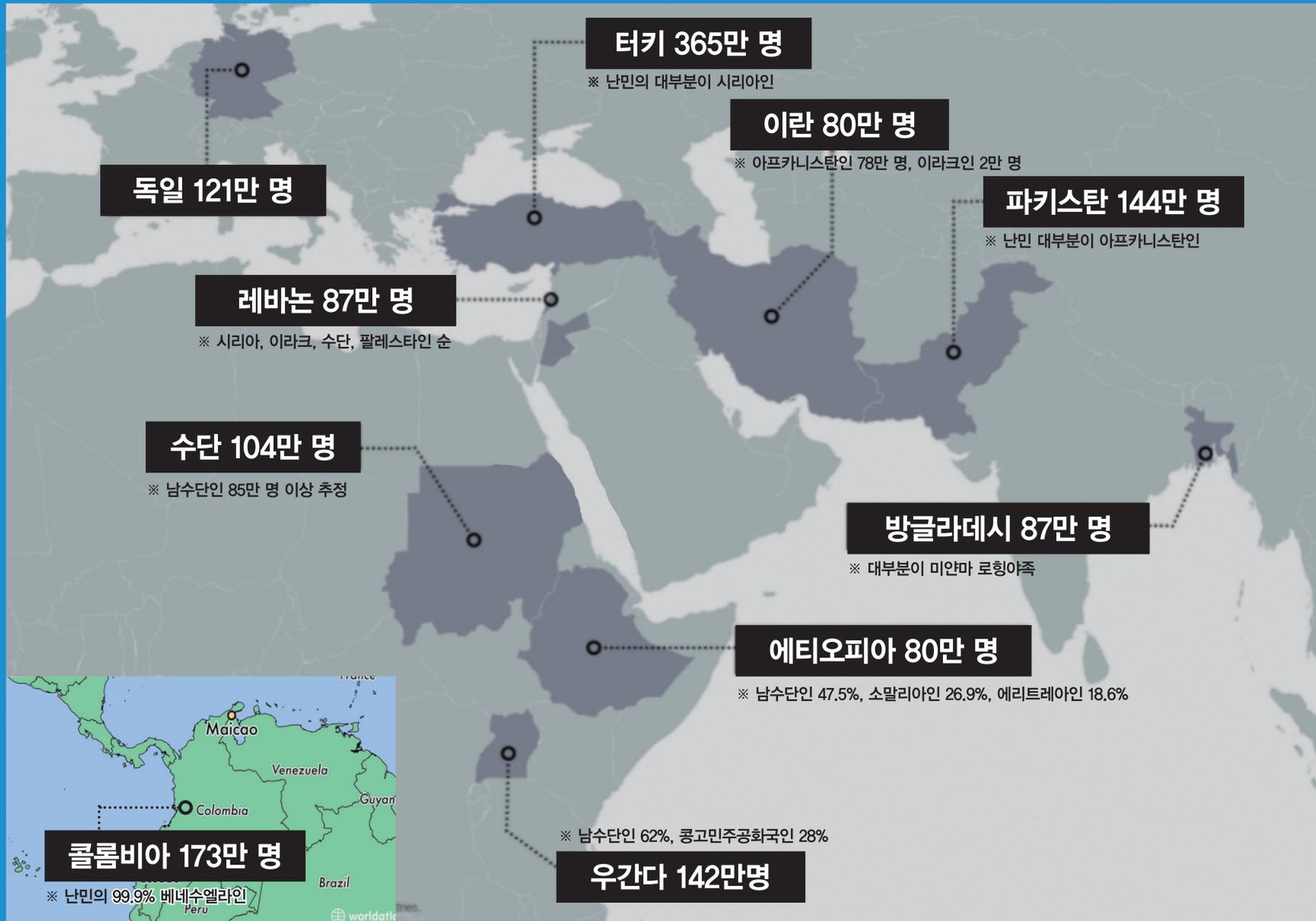


#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 10

※ 2020년 말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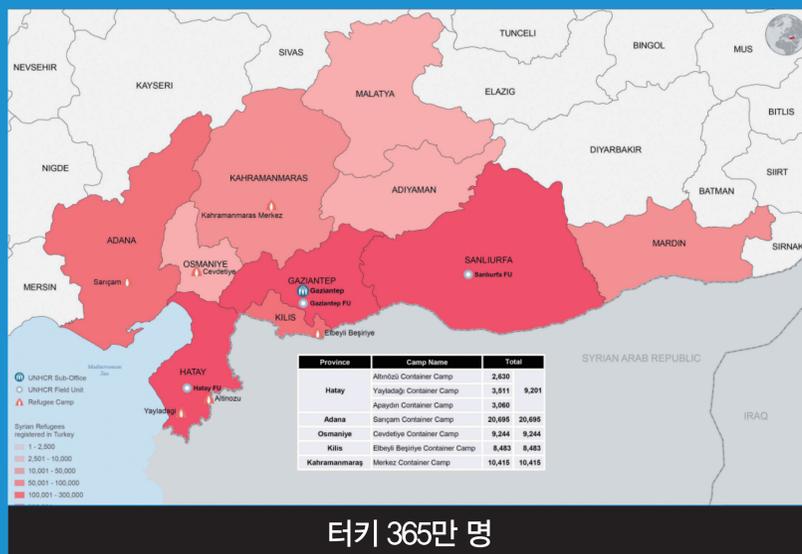


2021년 6월 20일 난민의 날에 발표된 난민과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간 나라 상위 10개국은 터키, 콜롬비아, 파키스탄, 우간다, 레바논, 독일 등의 순이다.

세계 난민의 85%는 개발도상국들이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 대부분은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성에 휘말려 있다. 이 때문에 난민들은 보호국으로 택한 국가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.

## 동영상 보기

2020년 말 기준, 어떤 국가가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을까?



터키 365만 명



콜롬비아 173만 명



파키스탄 144만 명 삼사투버저르 아프카니스탄인 난민캠프